

동지가 금속노조다!

대전충북지부

65호

발행인: 조민제
발행일: 2015년 7월 13일(월요일)
발행처: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교육선전부



임단투 승리!

노동시장 구조개혁 저지!
7.15 총파업!

7.15 총파업 돌입

민주노총 2차 총파업이 다가왔다. 7월 15일 전국 곳곳에서 총파업 투쟁이 벌어진다.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 일방통행을 막아내기 위해서다. 금속노조도 임단협이 전혀 풀리지 않고 있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임단협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금속노조는 임단협 타결과 노동시장 구조개혁 저지를 위해 총파업 투쟁에 함께 한다.

구조개혁 강행, 임단협 제자리

박근혜 정권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한 헛된 꿈을 버리지 않았다. 노동부를 통해 단협 시정지도, 각종 가이드라인 발표 등 꼼수를 부리고 있다. 노동부는 전국의 100인 이상 사업장 단체협약을 전부 다 조사해서 경영을 어렵게 하는 조항을 삭제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나섰다. 거기다 임금피크제, 성과급제, 일반해고, 사내하청 합법화까지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있다. 법적

효력도 없는 시정지도, 가이드라인인데도 강행하고 있다. 노동법 개악이 어려울 것 같자 힘으로 현장에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다.

정권의 이런 행보에 발맞춰 임단협도 제자리걸음이다. 지부교섭에서 7월 중순까지 임금 제시안이 한차례도 나오지 않았다. 올해는 임금교섭을 지회로 내리지 않고 지부교섭에서 다루기로 했는데도 아직까지 아무런 내용이 없다.

우리 삶은 우리가 지킨다!

7.15총파업은 아주 중요하다. 풀릴 기미가 없는 임단협을 압박하기 위해서 중요하다. 또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막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지부는 지난주 현장순회를 통해 조합원 동지들과 함께 이 투쟁을 승리로 만들 것을 결의했다. 노동자의 삶을 지켜주는 정권은 없었다. 우리 삶은 우리 힘으로 지키자!

보쉬전장 부당노동행위 유죄!

보쉬전장의 부당노동행위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은 7일 판결을 통해 이만행 보쉬전장 전 대표이사에게 벌금 500만원, 관리자 2명에게 각 벌금 300만원, (주)보쉬전장 법인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1)단체교섭에서 금속노조에 어용노조 보다 불리한 교섭안 제시한 것 2)어용노조에게 단협 체결 전에도 조합비 공제해줌으로써 차별적인 편의를 제공한 것 등이다. 그러나 창조컨설팅의 자문을 받아 금속노조 비방용으로 사용했던 경영소식지에 대해서는 무죄 처분이 내려졌다. 창조컨설팅에 대한 혐의는 대부분 무죄 처분이 나오고 있어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처벌이 벌금 수준이라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보쉬전장의 노조파괴 과정에서 벌어진 부당노동행위가 유죄로 인정되었다는 것은 주목할 부분이다. 특히 자본들이 어용노조 보다 불리한 단협을 통해 금속노조를 차별했던 것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015임단투 승리!
노동시장 구조개혁 저지!

7.15 총파업

대전 : 7/15(수) 15시 정부종합청사 남문광장
충북 : 7/15(수) 16시 청주 상당공원

유시영 처벌 촉구!

유성지회 결의대회

일시 : 7월 17일(금) 15시
장소 : 천안법원 앞